

세계화와 고전교육

노명식

전 한림대 교수·서양사학

요새 우리나라에 나도는 글들이나 말들 가운데서 세계화라는 낱말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을 찾아 보기가 힘들 정도이다. 과연 세계화란 무엇이며, 세계화의 가치체계는 것이어야 하는가. 세계화의 가치관은 보편적 가치와 특수적 가치가 충돌할 때에는 후자를 전자에 종속시켜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보편적 이해관계와 특수적 이해관계가 원만한 일치와 조화를 찾지 못하고 충돌할 경우에도 후자를 전자에 종속시켜야 한다.

그런데 요새 갑자기 세계화의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는 지난 한 세기의 우리 현대사에서 마땅히 실현했어야 했던 세계화를 우리 국민생활에 육화(肉化)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냉전체제의 갑작스런 해체와 함께 민족통일의 날이 숨가쁘게 다가오고 있고, 지구전체가 일체화(一體化)된 가운데서 무한경쟁의 막이 갑자기 올랐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역사적 과업은 이미 한 세기 전부터 부과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그 과업 수행의 기회를 이력저력 놓치고 말았는데, 그 과업 수행에 대한 3대 장애요인은 일제 식민지배와 북한의 공산주의, 그리고 남한의 유신체제였다. 이 셋은 공통적으로 보편적 가치와 보편적 이해관계가 특수적 가치와 특수적 이해관계에 충돌할 경우 후자를 전자에 종속시키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전자를 후자에 종속시키는 가치체계를 신봉하였다.

일제시대의 친일파, 북한의 공산당, 그리고 남한에서 '하나회'나 TK니 하는 것으로 상징되고 있는 유신세력은 모두 끼리끼리의 특수적 이익을 민족 전체 혹은 국민전체의 이익에 종속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걸었다. 이 반역사(反歷史)의 세 모델이 우리 현대사에 미친 역기능은 실로 엄청난 것으로서 그 극복이야말로 오늘의 세계화 과업이 해야 할 소극적인 과제이다.

그리고 그 적극적인 과제는 국민 전체의 의식의 개혁이다. 의식의 개혁에는 정부나 매스컴, 그리고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마련이지만, 개혁되어야 할 의식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특수적 가치와 특수적 이해관계를 보편적 가치와 보편적 이해관계에 일치시키는 의식이며, 양자가 충돌할 경우에는 당연히 전자를 후자에 종속시키는 생활의 일상화이다.

오늘날 정부와 매스컴의 선전을 보면 세계화는 마치 온국민이 실용적 기술인이 되는 길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어와 컴퓨터에 능숙한 국민이 많아질수록 세계화의 길이 빨라질 것은 분명하지만 영어 자체보다 영어회화를, 컴퓨터의 원리보다 컴퓨터의 조작기술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농후한 것 같다.

실용적 지식과 기술의 발달은 응용과학의 발달 없이는 안되고, 응용과학의 발달은 기초과학의 발달 없이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실용적 지식과 기술이 아무리 긴급히 필요하다하더라도 보편적 지식과 원리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뿌리없는 나무처럼 성장을 계속할 수가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바 반역사(反歷史)의 세 모델이 세계화에 역기능한 까닭도 보편적 가치와 진리보다 특수적 실용적 기술적 가치를 더 중시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그 보편적 진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공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고금동서의 고전이다. 어려운 옛날 고전만이 고전이 아니다. 보편적 가치와 보편적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면 그것이 어느 시대 어느 분야의 것이건 고전이다. 고전은 모든 사물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고 조용히 깊이 생각케 한다. 그것은 컴퓨터의 조작기술이 아니라 컴퓨터의 원리를 체계적 근원적으로 이해시켜 주기에 컴퓨터의 무한한 발전을 약속해 준다. 세계화는 우리 시대의 거대한 역사적 도전이다. 이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할 수 있는 지혜는 보편적 원리적 지식과 진리를 터득한 지혜이다.

표지 인터뷰	2	인류학의 거울에 비춰본 한국인의 삶 「한국문화론」 펠릭스 전경수교수
초점	4	무모한 광고비에 무너지는 출판사 베스트셀러 내고도 '허덕', 도산 잇따라
쟁점	6	장편소설 '억대'상금의 화려한 유혹 각종 문학상 고액화 추세 둘러싼 논쟁
기획	8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어디까지 왔나 사회단체 저항운동, 나라밖 투쟁, 사회주의운동 등
출판화제	10	언어문법의 '무법천지', 컴퓨터통신 11 제 색깔 뚜렷한 '집필집단'의 부상 12 '새내기'를 위한 안내서 활기
얼굴	13	「강강은 세월」 펠릭스 김용택 시인 국내 첫 「장서표전」 연 남궁 산씨
신간읽기	14	디즈니사와 씨티은행의 위기관리 15 로베르 마생의 「글자와 이미지」
화제의 출판	16	'대우학술총서' 자연과학 분야 100권 돌파
출판가 스케치	17	'도서정가제' 파문, 폐업도 불사·외
에세이	18	어여쁜 여인의 뒷모습 같은 책 - 윤대녕 19 "헌책방이 '아직도' 있습니다" - 이문재
책과 미술의 만남	20	새로운 책의 시대에 대한 예감 - 박상순 ④ 사냥꾼 시대에서 영상매체의 시대까지
작가가 읽는 명화	21	바슐라르가 읽은 사갈의 작품세계
내가 읽은 원서	22	한 학인학자의 '삶'에 담긴 종교해석 - 정진홍
시평	24	이정우 「담론의 공간」 - 이기현 하그로브 「환경윤리학」 - 이진우 25 김문환 「분단조국과 통일문학」 - 김도태 26 박기순 「언론학의 이론과 연구」 - 이동신 풀 데이비스 외 「원자 속의 유령」 - 임경순 27 한승원 「까마」 - 문홍술
이 책 그 사람	28	「색동저고리 입고...」 펠릭스 백원담씨 「예절바른 우리말 호칭」 펠릭스 이무영씨 29 「협객의 칼끝에 천하가 춤춘다」 펠릭스 강효백씨 「문명 앞에 숲이 있고...」 펠릭스 김준호씨
해외출판	31	독일 예술출판의 장인적 저력
세계의 출판	32	미국 정신과학의 심리분석서·외 34 신간안내 / 44 새로운 책